

## 모파상 단편 ‘L’odyssée d’une fille’의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의 비교 연구\*

김 정 우  
(경남대)

### 1. 머리말

한국의 대표적 민족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소월(본명 ‘金廷湜’, 1902~1934)은 시 이외에도 소설과 평론, 수필 등의 다양한 산문을 남겼는데<sup>1)</sup>, 그 가운데서 특히 눈에 띄이는 것은 「씨도라가는 개집」<sup>2)</sup>이라는 번역 소설이다. 소월이 남긴 이 번역 소설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번역학 연구자의

---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필요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캐나다 UBC 아시아학과(Asian Studies) 로스 킹(Ross King) 교수에게 사의를 표한다.

- 1) 소설로는 『學生界』 3호(1920. 10, pp.74-76)에 실린 ‘春朝’와 『開闢』 28호(1922. 10, pp.41-46)에 실린 ‘함박눈’이 있고, 평론으로는 『開闢』 59호(1925. 5, pp.11-17)에 실린 ‘詩魂’이 있으며, 수필로는 ‘競技에 對한 道義的 觀念’, ‘再昨年 놀든 씨름노리 開會辭’, ‘農村相 商街相’ 등과 다섯 편의 서간문이 있다. 김종욱(317-85) 참고.
- 2) 배재중학교 교지 『培材』 2호, 1923년 3월, pp. 88-99.

흥미를 끈다.

첫째는 서구 문물과의 접촉이 흔치 않았던 1920년대 번역 자료로서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이 번역 소설의 분석에 의지해서, 1920년대에 당대 최고 지성의 한 사람이 구사했던 번역 기법과 문화소 번역 전략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이 번역 작품이 갖는 한국 번역문학사상의 의의이다. 우리는 이 번역 소설의 분석을 통해서 번역 작품을 하위 체계로 거느리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기술<sup>3)</sup>을 살찌울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프랑스어 원전을 한국어와 영어로 옮긴 두 가지 번역, 곧 한국어 번역 「씨도라가는 계집」과 영어 번역 「The Odyssey of a Prostitute」를 비교·분석하여, 소월의 번역 소설이 가진 위와 같은 자료적 가치의 실상을 밝히는 한편, 양쪽 번역에 적용된 번역 기법과 번역 전략 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이를 통해 도달하려고 하는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번역의 기법 비교, 즉 양쪽 번역의 텍스트 전문을 비교문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는 동일한 어족에 속하는 두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역과 상이한 어족에 속하는 두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역 기법과 번역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이자 궁극의 목표가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언어들, 예컨대 프랑스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에서는 통사적 혹은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직접번역 기법(차용, 모사, 축자번역)의 출현 빈도가 상이한 계통에 속하는 언어들, 예컨대 프랑스어와 한국어 사이의 번역에서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동일한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대개 동일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는 반면에 상이한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간접번

3) 비교적 최근에 철저한 자료 수집과 고증을 통해 김소월의 작품 세계를 재구성한 김종욱의 『정본 소월 전집』에 의하면, 약 500편이 넘는 소월 연구 논저 가운데 이 번역 소설을 다룬 것은 단 한 편도 없다. 더욱이 소월의 이 번역 작품은 한국 근현대 번역 문학 관련 1차 자료를 집대성한 김병철의 『한국 근대번역문학사』와 『한국 현대번역문학사』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본고는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의 비교 분석이 주된 연구 목적이므로 국문학사상의 의의는 소월의 문학 세계에 존재했던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언급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또한 소월 번역에 대한 상세한 국어학적 분석도 후고를 기약한다.

역 기법(전위, 변조, 등가, 번안)이 많이 활용되므로 목표언어의 독자들이 적잖은 번개를 입은 텍스트를 수용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sup>4)</sup> 우리는 이와 같은 일반 번역학 이론이 현재 비교의 대상이 되어 있는 두 가지 번역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문화소 번역 전략의 비교, 즉 양쪽 번역에서 문화소와 관련된 표현의 번역에 어떤 전략을 채택했는가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양쪽 번역본의 번역자가 외국 문화의 수용에서 자국화 전략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중화(中和)나 이국화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실제 번역 자료를 통해 비교하려는 것이다. 서구 문물과의 접촉 초기였던 1920년대 당시에 소월이 선택한 문화소의 번역 전략과 거의 동시대 미국인 번역자가 선택한 번역 전략을 비교 혹은 대조하는 것은, 양자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sup>5)</sup>

셋째는 두 가지 번역의 상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 문제는 각각의 번역이 서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일정한 영향 관계를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서 이들 번역이 원전에서 직접 번역되었는지 아니면 원전이 아닌 다른 번역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 2. 자료

### 2.1. 원전 텍스트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의 원전 『L'odyssée

- 4) 비교문체론에 관한 이론 소개는 전성기(1996), 지정숙(2002), 이승권(2004), 이향(2008) 등 적잖은 논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적용한 것은 구정연(1999)과 민난식(2005) 정도가 눈에 띈다. 전자는 『L'étranger』의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대조한 연구이고, 후자는 『Le petit prince』의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대조한 연구이다.
- 5) 이는 위에 언급한 본고의 첫 번째 목표, 곧 번역 기법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즉, 비교문체론의 제7 단계인 번안은 주로 문화소의 번역과 관련된 번역 기법이다.

d'une fille」는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Guy de Maupassant, 1850~1893)이 1883년에 창작한 단편 소설이다. 모파상의 작품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일본과 한국의 문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바, 조진기(1989)에 따르면 “일본에서 모파상의 수용은 단편 소설을 확립시켜주는 한편, (중략) 일본 전래의 인간관, 연애관으로부터 해방을 촉진하여 일본 문학에 새로이 자연주의의 길을 열어놓았으며(*ibid*, 131)”<sup>6)</sup>, 한국에서도 “1920년대 한국 근대 문학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당대의 모든 작가들에게 리얼리즘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했고 문장 스타일 및 구성의 중대성을 증대시켜주었다(*ibid* 140)”<sup>7)</sup>는 문학사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 활용한 원전 텍스트는 주로 서구의 문학 작품을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Project Gutenberg)의 일환으로 구축된 인터넷 가상 도서관의 자료(<http://www.gutenberg.org/etext/files/3090/3090.txt>)이다.<sup>8)</sup>

## 2.2. 한국어 번역 텍스트

위 원전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 텍스트는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소월이 재학했던 배재중학교(고등보통학교)의 교지 『培材』 2호(88-99, 1923년 3월 발간)에 게재되었다. 단, 본고에서는 소월의 작품 전체를 교감하여 간행한 김종욱(2005: 하권 345-355)에 실린 것을 분석 대상 텍스트<sup>9)</sup>로 사용했다. 누구나 동

- 
- 6) 일본에서는 모파상의 이름이 1888년에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해서, 작품도 명치기(明治期)와 대정기(大正期)에 걸쳐 332편이 번역되었는데, 이 수치는 이 시기에 번역된 외국 문학 작가의 작품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한다(조진기 1989: 127).
- 7) 우리나라에서도 모파상은 1915년부터 이광수에 의해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여, 1920년대를 지나면서 그의 생애와 함께, 박영희(“七月에 回想되는 海外文人”, 『開闢』 통권 49호, 1924. 7), 현진건(“朦朧한 기억”, 『白潮』 제2호, 1922. 5), 염상섭(“個性과 藝術”, 『開闢』 통권 22호, 1922. 4) 등에 의해 작가적 성격이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되었다고 한다. 특히 소월의 스승인 岸曙 김억이 모파상 작품의 특성을 묘사하면서, ‘客觀的 極致的 境界’(“近代文藝 六”, 『開闢』 통권 19호, 1922)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것은 소월의 모파상 수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조진기(1989) 참고.
- 8)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의 관련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 9) 원전의 마지막 15행 정도(un restaurant des environs 이하 문장)가 낙장으로 누락되

의하듯이 번역 텍스트의 분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텍스트의 구체적인 저본을 확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즉, 이러한 저본 확정 작업을 통해서 해당 번역이 원전에서 번역된 직접번역인지 아니면 다른 번역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간접번역(=중역)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본격적인 연구에 앞선 일차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와 같이 동일한 원전에 대한 두 가지 번역을 대상으로 각각의 번역 기법 등 제반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각 번역의 저본 확정이 논의의 전개와 결론의 도출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소월의 한국어 번역은 프랑스어 원전을 저본으로 하는 직접번역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1923년 3월로 명시되어 있는 발표 연대이다. 김병철(1975: 5)도 지적하고 있듯이, 20세기 초반의 상당수 한국 번역 문학 작품이 일본어 번역을 저본으로 하는 중역(重譯)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모파상의 이 단편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나타난 것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65년도이므로<sup>10)</sup>, 소월의 번역이 일본어 번역을 저본으로 하는 중역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물론 아래 2.3절에서 언급되는 영어 번역(1925)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도 시기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는 소월이 자신의 번역에 붙인 「씨도라가는 계집」이라는 제목이다. 앞서 언급한 일본어 번역의 제목은 ‘ながれ流れて(흐르고 흘러서)’이고, 아래 언급하게 되는 영어 번역의 제목은 ‘The Odyssey of a Prostitute(어느 거리 여인의 여정)’이어서, 소월의 번역 제목과 다르다. 특히 ‘계집’(계집)은 원문의 ‘fille’를 직역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남은 문제는 소월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프랑스어 원전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을 습득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sup>12)</sup> 스승 안서 김역을 사사

어 있다.

10) 앞서 각주 6)에서도 언급했듯이, 모파상의 작품은 일본에서 다수가 번역되었지만, 이 작품의 번역은 오로지 춘요도(春陽堂)에서 발간된 모파상 전집에만 실려 있을 뿐이다.

11) 물론 프랑스어 단어 ‘fille’에는 ‘소녀, 여자’ 이외에 ‘매춘부, 창녀’ 등 특수화된 뜻도 있다. 그리고 제4장의 본문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소월의 번역에 한자어가 의외로 적고 고유어가 다량으로 눈에 뜨인다는 점도 일본어 번역의 중역일 가능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했거나 독학으로 어학 능력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sup>13)</sup>

### 2.3. 영어 번역 텍스트

위 프랑스어 원전에 대한 영어 번역 텍스트는 1925년에 발간된 모파상 전집 제14권(*The olive orchard, and other stories, Volume 14 of the Collected Novels and Stories of Guy de Maupassant*)에 수록된 ‘The Odyssey of a Prostitute’(140-149)이다.<sup>14)</sup> 연구자가 사용한 자료는 위의 1925년 판을 1971년에 다시 찍어낸 것인데, 책머리의 판권과 서지 사항을 종합해보면 출판사만 바뀌었을 뿐(Alfred Knopf, Inc. → Books for Libraries Press), 다른 내용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어 번역 텍스트는 한국어 번역 텍스트와 거의 같은 시기의 번역 자료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 3. 이론과 연구방법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는 동일한 원전이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겪게 되는 텍스트의 변용 양상을 확인하고, 원전(ST)에서

12) 다만 소월의 일반적인 번역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중욱(2005)에 의하면, 한시를 번역한 번역시가 13편 있고, 영문시와 일문시를 번역한 번역시가 각각 1편, 3편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월의 자작시로 추정되는 영시(*If this great world of joy and pain*)까지 전하고 있다(하권 289쪽 참고).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배재중학은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인 관계로 초창기 강의의 상당 분량을 영어로 진행했다고 하니, 이러한 분위기 역시 소월의 외국어 해독 능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3) 필자가 입수한 당시의 배재고등보통학교 5학년 학적부를 확인해 보면, 영어 교과목은 강독과 작문 회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설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어 교과목은 없었다. (그 전에 다녔던 오산학교 학적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각주 7)에서 밝힌 대로 스승 안서가 모파상의 작품 세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음도 주목된다.

14) Translated by Storm Jameson, Books for Libraries Press, Freeport, New York.

개별 목표언어 텍스트(TT)로 넘어오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용 양상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번역 기법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때 A→B 번역과 A→C 번역의 결과를 동일한 평면 위에 놓고 비교하거나 대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석의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는 비네와 다르벨네(Vinay et Darbelnet)의 비교문체론(stylistique comparée)에서 제안하는 일곱 가지 번역 기법을 분석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비교문체론에서 제안한 7단계 번역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프랑스어 원전 텍스트와 이것의 한국어 번역 텍스트 및 영어 번역 텍스트를 전문에 걸쳐 비교/대조하여 여기에 적용된 번역 기법을 확인한 다음에, 그 번역학적 의미를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구조와 특성에 비추어서 음미해 보기로 한다. 비교문체론에서 제안된 7가지 번역 기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차용(L'emprunt)<sup>16)</sup>은 원천언어의 단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목표언어 텍스트에 사용하는 번역 절차이다. 이러한 방식은 ST 단어에 대응되는 TT 단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ST 단어를 TT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 기법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어렵다.<sup>17)</sup>

모사(Le calque)는 원천언어의 표현(주로 합성어 혹은 구)을 옮길 때 그 조어 방식이나 통사 구조 등을 그대로 모방해서 목표언어 텍스트에 사용하는 번역 절차이다. 차용이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모사는 단어와 단어(혹은 구)의 통합관계 내지 의미연결 관계를 빌려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 대상이 되는 단어의 단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차용

15) 비교문체론의 번역 절차 혹은 기법을 다루고 있는 논문과 저서는 논문 말미의 참고 문헌에서 보듯이 그 수효가 적지 않다. 논문으로는 이승권(2004), 민난식(2005), 이향(2008)을 참고하고, 저서로는 전성기(1996), 지정숙(2002)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저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술어와 용례의 제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 술어의 체계적인 정리도 비교문체론의 정확한 수용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16) 비교문체론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병기하는 원어는 저자가 사용한 프랑스어를 따르기로 한다.

17) 형태론의 영과생(零-, zero modification) 개념을 원용하여 '영번역'이라고도 한다.

과 모사는 목표언어의 영향이 대체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모두 차용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해도 무방할 것이다.

축자번역(La traduction littérale, Mot-à-mot)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문체적 변용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문법 규칙에 따라 번역을 수행하는 절차를 가리킨다.<sup>18)</sup> 이 번역 기법은 우리가 흔히 직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개 ST의 구조적 흔적을 TT 텍스트에 강하게 남기게 된다.

전위(La transposition)<sup>19)</sup>는 원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넘어오면서 품사가 바뀌는 번역 절차로, 번역을 수행했을 때 원천언어 단어의 문법적 자격이 목표언어에서 달라지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수의적 전위와 의무적 전위가 있다.

변조(La modulation)는 번역자가 원천언어 텍스트에 투영된 시점 혹은 관점을 목표언어에서 바꾸는 번역 절차로, 현상적으로 보면 각종 표현 방식의 변화를 가리킨다.<sup>20)</sup> 그러므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등의 변화도 모두 변조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여기에도 수의적 변조와 의무적 변조가 있다.

등가(L'équivalence)는 동일한 상황이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텍스트에서 전혀 다른 문장이나 문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러한 번역 과정에 적용된 번역 절차를 가리킨다. 주로 속담이나 관용구 등 개별 언어 특유의 표현을 번역할 때 사용되는 번역 기법이다.

번안(L'adaptation)은 원천언어 텍스트의 상황을 목표언어 텍스트에서 재현할 수 없을 때, 유사한 상황으로 대체해서 번역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이상으로 비교문체론에서 제안하는 일곱 가지 번역 절차를 검토해 보았는데, 이 가운데서 앞의 세 가지는 직접번역이고, 뒤의 네 가지는 간접번역이다. 그런데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곧 '문장 이상을 단위로 하는 ST를 동일한 의미를 갖는 TT로 옮기는 과정이나 결과'를 상기할 때, 진정한 번역 기법이라

18) '자구적(字句的) 번역' 혹은 '축어역(逐語譯)'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 '변환' 혹은 '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원어 'transposition'의 사전적 뜻 풀이는 '자리바꿈'인데, 품사 전환의 결과로 어순이 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20) 결국 원저자와 번역자의 시점(視點) 변화를 의미한다.



고 할 만한 것은 직접번역의 축자번역과 간접번역의 전위와 변조이다. 차용과 모사는 주로 단어나 구의 번역에 적용되는 절차이고, 등가와 번안도 ST의 언어 형식을 크게 벗어나는 절차라는 점에서, 모두 일반적인 번역 과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sup>21)</sup> 본고에서도 한국어와 영어 번역 텍스트를 비교하고 분석할 때 주로 세 가지 번역 기법(축자번역, 전위, 변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나머지 네 가지 번역 기법(차용, 모사, 등가, 번안)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수준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 4. 영어와 한국어 번역 텍스트의 비교와 분석

여기서는 프랑스어 원전 텍스트 총 247개<sup>22)</sup> 문장의 일부를 표본으로 뽑아서,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번역 양상과 번역 기법을 밝히기로 한다. 본문 텍스트의 비교에서는 프랑스어 원전과 영어 번역 및 한국어 번역 등 삼자를 한 문장씩(혹은 한 단락씩) 비교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게 된다. 기술 방식은 대체적인 경향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위 3장에서 살펴본 번역 기법의 각각에 해당하는 예문과 설명을 곁들이게 된다. 동일한 번역 기법이 사용되었거나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중복 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 
- 21) “등가는 ‘어휘화된 변조’에 지나지 않으며, 번안 역시 언어적 요소 못지않게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독립된 번역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전성기(1996: 15)의 각주 6) 참고. 또 “이 방법(=번안)은 등가의 특별한 경우(un cas particulier de l'équivalence), 즉 상황의 등가(une équivalence de situation)라고 할 수 있다.” 구정연(1999: 41) 참고. 한편 이들 세 가지 번역 기법을 전통적인 용어로 분류한다면, 축자번역은 직역이 되고, 전위와 변조는 의역이 되는 셈이다.
- 22) 여기 제시된 문장 수효는 개략적인 것이다.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두 문장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속된 50개의 문장을 임의의 두 장면에서 추출해서 검토했으며,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된 표본의 수효는 100개의 문장이다. 전체 텍스트의 절반 정도인데,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4.1. 총괄

본문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체재와 관련된 형식적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단락 구분을 보면, 영어 번역에서는 원문의 단락 구분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문장 하나가 한 단락을 이룬 것도 있고 두세 문장이 한 단락을 이룬 것도 있어 들쭉날쭉하지만 원문의 단락 구분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 (1.F) 프랑스어 원전

Oui, le souvenir de ce soir-là ne s'effacera jamais. J'ai eu, pendant une demi-heure, la sinistre sensation de la fatalité invincible ; j'ai éprouvé ce frisson qu'on a en descendant aux puits des mines. J'ai touché ce fond noir de la misère humaine ; j'ai compris l'impossibilité de la vie honnête pour quelques-uns.

##### (1.E) 영어 번역

Yes. The memory of that evening will never fade. For half an hour I realised the sinister reality of implacable fate. I shuddered as a man shudders descending a mine. I plumbed the black depths of human misery; I understand that it is not possible for some people to live a decent life.

##### (1.K) 한국어 번역<sup>23)</sup>

그래 그날 저녁 생각만은 아무래도 닳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얼마동안 저 이길 길 업슨 運命의 不吉한 感覺 때문에 씨달피 든 것이다.

내 몸은 炭坑의 箕拵 밧트로 밧길을 더듬더듬 드러노흘 썬에 우리 사람 든(\*'들'의 오기인 듯-필자)이 間間이 눅기리라고나 할 만한 그 神秘롭은 戰慄을 눅것든 것이다.

사람치고서는 ㅅㅅ시렵고 ㅅㅅ시렵은 晴黑의 箕拵 속살을 흔드러보앗

23) 한국어 번역의 예문 표기는 원칙적으로 김종욱(2005)를 따랐다. 다만, 띄어쓰기만은 가독성을 고려해 현재의 정서법을 따랐다. 당시 표기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든 것이다.

엿던 사람에 이르러서 正直히 살아갈 수는 到底히 不可能하다는 것이  
이야말로 眞摛한 事實인 것을 나는 알았다.

위 예문 (1)에서 보듯이 원전 (1.F)와 영어 번역 (1.E)는 단락 구분이 동일  
하지만, 한국어 번역 (1.K)는 이들과 확연하게 다르다.

다음으로 위의 예문 (1)에서 문장부호의 용법을 보면, 원전 (1.F)에는 세미  
콜론<sup>24)</sup>이 2회 나타났는데, 영어 번역 (1.E)에는 1회가 반영되어 있는 반면, 한  
국어 번역 (1.K)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장부호 용법의 차  
이는 양쪽 텍스트 전반에 걸쳐 대체적인 추세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컨대 아래 원문 (2.F)처럼 원문에 인용문을 이끄는 콜론이 출현한 경우,  
영어 번역에서는 이 콜론이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삭  
제되어 그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2.F) 프랑스어 원전

Ma compagne me demande :

- Viens-tu chez moi?<sup>25)</sup>

(2.E) 영어 번역

My companion asked :

“Will you come home with me?”

(2.K) 한국어 번역

게집에는 나를 보면서

“우리집에 좀 가사지 안으세!”

이상의 예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단락의 구분이나 문장부호 용법처럼 텍

24) 원전에 보이는 세미콜론은 두 문장의 경계선을 표시하면서 문맥상 서로 관련이 있  
음을 드러내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등위접속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25) 프랑스어 텍스트에서 문장 앞에 표시된 하이픈(-)은 대화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스트를 구성하는 형식적 요소들이, 언어 구조가 상이한 언어들 사이의 번역(프랑스어-한국어)보다 언어 구조가 유사한 언어들 사이의 번역(프랑스어-영어)에서 비교적 원전에 가깝게 반영되는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sup>26)</sup>

위에서 밝힌 대로 100개의 표본 문장을 대상으로 이들 각각에 상응하는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의 번역 기법을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어 번역의 경우는 축자번역과 변조, 등가, 전위, 변안, 모사가 각각 39회, 31회, 14회, 7회, 2회, 2회로 나타났고<sup>27)</sup>, 영어 번역의 경우는 축자번역과 전위, 변조, 등가가 각각 92회, 3회, 2회, 3회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수치를 종합해보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직접번역(=직역: 축자번역)과 간접번역(=의역: 전위, 변조)<sup>28)</sup>이 대략 39 : 38의 비율을 보이고, 영어 번역에서는 직접번역과 간접번역이 대략 92 : 5의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동일 계통의 언어들 사이의 번역에서 직접번역이 우세하고 그렇지 않은 언어들 사이의 번역에서 간접번역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지금까지의 보고(구정연 1999; 민난식 2005)와 대체로 일치한다.<sup>29)</sup> 이러한 현상은 물론 언어 구조상의 이동(異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번역의 경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기본적으로 축자번역의 기법을 적용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구나 표현을 첨가한 용례가 많다는 점이다.

(3.F) Tout à coup j'entends des chevaux derrière moi.

- 
- 26) 이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언어 구조가 상이한 언어들 사이의 번역에서는 목표언어의 언어 규범에 따르는 규범화(normalization)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 27) 한국어 번역의 경우에 총계가 100이 못 되는 것은 오역과 누락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사례가 5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이 나타난 경우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을 선택해서 분류했다.
- 28) 차용과 모사 및 등가와 변안은 각각 직접번역과 간접번역의 절차에서 제외했다. 이들 4가지는 진정한 번역 기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장의 각주 21) 참고.
- 29) 다만 구정연(1999: 63)에서는 프랑스어-한국어 번역에서 변조, 전위, 축자번역의 순서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축자번역의 범위를 파악하는 기준의 융통성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준을 비교적 폭넓게 적용해서 명시화를 위해 어구를 첨가한 경우도 변안 등으로 보지 않고 축자번역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3.E) Suddenly I heard horses behind me.

(3.K) 갑작스럽게 발똥꿈치가 울니우도록 말발굽 소리가 들니겠지요.

(4.F) Ils me regardent.

(4.E) They looked at me.

(4.K) 물그림히 제 몸을 아래위로 원통 훑터보기 시작하겠지요.

(5.F) Mais ils m'auraient rattrapée tout de suite, vous comprenez.

(5.E) But they would have caught me up in a minute, you see.

(5.K) 그래도요, 그런 일 하기는 한다고 해도 속뎡 쫓차 잡피고 말면 그 제야말로 야단이 날 것이라고도 생각하기는 하였서요. 그럴 것이 안이에 요.

예문 (3.K)는 ‘갑자기 나는 뒤에서 말(울음)소리를 들었다’ 정도의 뜻을 가진 원문 (3.F)를 번역하면서, ‘발똥꿈치가 울리도록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문에 없는 어구 내지 표현이 덧붙여져 있지만, 그렇다고 전위나 변조 기법으로 보기도 어렵고 등가나 변안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원문의 표면적 의미를 온전하게 수용한 축자번역으로 분류하되, 해당 장면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구나 표현을 첨가한 명시화 기법이 가미된 번역으로 간주하고자 한다.<sup>30)</sup> 나머지 두 예문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4.K)는 ‘그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정도의 뜻을 가진 원문 (4.F)를 ‘물끄러미 제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기 시작했다’로 옮기고 있다. 이는 ‘나를 바라보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수용하면서 ‘나’를 ‘내 몸을 아래위로’로, ‘바라보다’를 ‘물끄러미 온통 훑어보다’로 구체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5.K)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곧바로 나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정도의 원문을 옮기면서, 앞 문장에서 나온 ‘그런 일 하기는 한다고 해도’를 다시 첨가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그제야말로 야단이 날 것’이라는 어구를 첨가해서 역시 화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과 비교하면 영어 번역에서는 원문을 문자 그대로 축자번역하여 대단히 경제적인 번역

30) 이러한 번역 현상은 김정우(2001: 62-64)에서 ‘번역 기교’로 언급하고 있는 ‘의미 구체화 수법’과 ‘첨가 수법’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굳이 명시화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원문의 뜻을 목표언어 독자들에게 거의 그대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번역자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어 번역의 경우에 심심치 않게 오역이 눈에 뜨인다는 것도 영어 번역과 대조되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어, 특히 프랑스어 텍스트의 존재가 혼치 않았을 뿐더러, 변변한 불한 사전조차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당시의 우리 번역문학계가 처한 저간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31)</sup>

(6.F) Elle n'avait pas vingt ans, bien que fanée déjà.

(6.E) She was not yet twenty, although already fading.

(6.K) 아직 스물다섯 살짜리 그릇케는 되여슴직하지 안아도 어느덧 꽤 말났다는 생각을 니르키게 하는 아희였다.

(7.F) Nous arrivons dans la ligne des agents. Elle s'ouvrit pour me laisser passer.

(7.E) We reached the line of police. It opened to let me pass.

(7.K) 우리는 동빛재길예를 왔다. 그는 나를 먼침 지나게 하랴고 날과 좀 썬러졌다.

(8.F) Elle murmura dans ses larmes :

“Si tu savais, ça n'est pas gai, va.”

“Quoi donc?”

“C'te vie-là.”

“Pourquoi l'as-tu choisie?”

“Est-ce que c'est ma faute?”

“A qui la faute, alors?”

“Je sais là ,oi!”

31) 당시에 번역자 소월이 참고할 수 있었던 불한 사전으로는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정도를 들 수 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2004년에 간행한 이 필사본 사전에 해제를 쓴 강이연에 의하면 이 사전은 1870년경에 폐롱 신부에 의해 편찬되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의 활자본 불한사전으로 알려진 『법한즈뎨』(*Petit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은 이보다 대략 20여 년 정도 뒤진다.

(8.E) She murmured between her tears :  
“It’s not very pleasant, if you only knew.”  
“What isn’t?”  
“The life I live.”  
“Why did you choose it?”  
“It wasn’t my fault.”  
“Then whose fault was it?”  
“I know whose it was!”

(8.K) 그리한즉 계집애는 우는 소리로 소군거렸다.  
“혹시 당신이 그것을 알으신다고 해도 .....바늘 솟만치 滋味롭우실 것도 업습니다. 가 주시고 마르세요.”  
“어찌 했다고 이러나 글세!”  
“이런 장사가요 ..... 말이예요.”  
“그럼 왜 즐겨 이런 버릇을 시작했던가?”  
“그래요. 누구의 罪인 것일까요?”  
“아랏소 아랏어. 그러치그래.”

(9.F) “Plus souvent que je vas dépenser vingt sous de chambre.”  
(9.E) “It’s not often I spend a franc on a room.”  
(9.K) “어허 나도 흔히 二十錢짜리 충을 비러가지고 노라본 일이 있는 걸.”

(6.K)는 비교적 단순한 실수에 속한다. 원문 (6.F)에 보듯이 ‘스무 (살)’이 분명한데 착오로 ‘스물다섯’이라고 했다. (7.K)의 밑줄 친 ‘그’는 원문 (7.F)의 ‘elle’을 옮긴 3인칭 여성대명사인데, 이 ‘elle’은 바로 앞에 있는 ‘la ligne’를 받은 대명사이다. 따라서 이 여성대명사를 작품의 여성주인공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명사에 성(gender)의 구분이 있는 프랑스어의 굴절 체계에 익숙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8.K)는 연속된 대화문의 하나를 번역에서 빠트린 결과, 나머지 대화의 주체가 뒤바뀐 오류이다. 원문 (8.F)를 보면 밑줄 그은 세 문장이 차례로 ‘여주인공-나-여주인공’의 대화임이 자명한데, (8.K)에서는 이 중에서 맨 위의 문장을 번역에서 놓치고 나서, 나머지 두 문장을 ‘여주인공-나’의 순서로 처리하고 있다.<sup>32)</sup> 한편 (9.F)는 ‘방값으로 20수<sup>33)</sup>를 쓰는 건

흔치 않다’는 뜻인데, (9.K)에서는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한국어 번역의 전반적인 양상과 관련하여 관사와 대명사의 번역 및 번역 어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프랑스어의 정관사(le, la)는 번역자의 눈에 대단히 생경한 존재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10.F) Le vieux recommença :

(10.E) The old man began again :

(10.K) 만져 말하던 사람이 또 이리했습니다.

(11.F) Or, comme ej passais dans un bois, le vieux dit :

(11.E) And then, as I was walking through a wood, the old one said :

(11.K) 그러다가 었던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을 적에 갓튼 그 사람이 이  
러케 말을 합니다.

(10.K)에서는 ‘그 노인’ 정도로 옮기면 될 (10.F)의 밑줄 그은 어구를 ‘먼저 말하던 사람’으로 표현했고,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 (11.F)도 ‘같은 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명사 용법에서는 3인칭 여성대명사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 (12.K)의 밑줄 그은 단어에서 보듯이 전편에 걸쳐 3인칭 남성대명사인 ‘그’가 3인칭 여성대명사도 겸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월의 이 작품이 번역되던 1920년대 초반만 해도 3인칭 여성대명사 ‘그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김정우 1994: 23)와도 일치한다.

(12.F) Je répondis, pour me débarrasser d'elle :

(12.E) To get rid of her, I answered :

(12.K) 나는 그의 말에 좀 안이안이하였서 (.....)라고 對答하였다.

어휘 구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뜨인다. 하나는 표기에서 한자를 되도록 자제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성어와 의태어 등 감각적인 어휘

32) 각각의 대화가 누구의 말인지는 종결어미에 나타난 화계(speech level)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33) 여기 나타난 프랑스어 화폐 단위 ‘수(sous)’에 대해서는 4.3절에 상론된다.



를 다량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더듬더듬’, ‘이긋이긋’, ‘갈기갈기’, ‘번들번들’, ‘잡시잡시’, ‘쌘물쌘물’ 등은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서정시인다운 어휘 구사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다양한 번역 기법이 발현된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4.2. 용례 분석

### 4.2.1. 직접번역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기법은 축자번역이었다. 그러나 앞서 4.1절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 번역은 문자 그대로의 축자번역이라기보다 명시화를 위한 어구나 표현의 첨가를 곁들인 축자번역인 반면, 영어 번역은 문자 그대로의 축자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축자번역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번역, 즉 차용과 모사의 용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차용은 주로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번역에서 일어났다. 이는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이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원문에 나온 인명과 지명은 다음과 같다.

(13.F) Vaudeville, rue Drouot, Yvetot, Rouen, Barantin (이상 지명)

M. Lerable, M. Dutan, Antoine(이상 인명)

(13.E) Vaudeville, Rue Drouot, Yvetot, Rouen, Barantin

M. Lerable, M. Dutan, Antoine

(13.K) 보-드브르, 드로워, 이부터우-(이옌러우), 루-안, 란펜(부란텐)

로라-보르(루라-브르/ 프라-브), 듀탄(튜탄), 안토완누

34)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장 발달한 언어의 하나이다. 짐작 하건대 소월을 비롯한 당대의 문인들은 번역도 모국어를 사용하는 창작의 한 장르로 보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했던 불한 사전(Dictionnaire français-coréen)에도 요즘의 불한 사전에 비해 의성어나 의태어가 빈번하게 눈에 뜨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위에 ‘Bree’라는 표제가 붙은 쪽을 보면, ‘조로록조로록하다, 종중거리다, 종알종알하다, 중중거리다, 주루룩주루룩(비 온다), 죽죽하다, 지지하다, 좌르르하다, 썰걱하다, 찰찰(호르다), 철석철석하다, 출냥출냥하다’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다량으로 나타난다.

원문의 고유명사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 번역을 관찰해보면, 발음을 그대로 차용했으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영어 번역 (13.E)는 원문의 단어를 완벽하게 차용했는데, 심지어 ‘Rue Drouot’에서 보듯이 ‘Rue(거리)’까지 그대로 가져왔다. 한국어 번역은 발음을 차용했으면서도 곳에 따라 표기가 일관성이 없다.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어 발음의 표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관성의 결여는 번역에 적지 않은 흠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모사의 용례는 한국어 번역에서 다음과 같은 두 건이 발견되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적당한 용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14.F) Qu'est-ce que vous auriez fait à ma place?

(14.K) 그때에 제 몸의 자리에 가시면 당신은 엇더케 하시겠나요?

(15.F) je pleurai tout ce que j'avais de larmes.

(15.K) 눈물이 있는 데까지만은 우렷던 듯해요.

(14.K)는 전체적으로 부사구를 절로 처리한 변조에 가깝지만 표현법은 원문의 단어 연결관계를 빌려온 모사이다. (15.K)도 ‘tout ce que’를 ‘-데까지’로 번역하여 수용한 모사로 볼 수 있다.

#### 4.2.2. 간접번역

전위와 변조 등의 간접번역 기법은 한국어 번역에서 몇 번 나타났지만, 영어 번역에서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었다. 전위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sup>35)</sup>

(16.F) j'ai éprouvé ce frisson qu'on a en descendant aux puits des mines. J'ai touché ce fond noir de la misère humaine ; j'ai compris l'impossibilité de la vie honnête pour quelques-uns.

35) 사실, 한국어 번역의 제목 ‘씨도라가는 계집’ 자체가 전위의 훌륭한 예이다. 원제 ‘L’odyssée d’une fille’는 전치사(de) 다음에 오는 명사가 앞에 오는 핵심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의 제목은 원제의 핵심 명사를 동사의 관형사형(‘떠돌아가는’)으로 처리하고 ‘fille’에 대응되는 ‘계집’을 핵심 명사로 표현했다.

(16.E) I shuddered as a man shudders descending a mine. I plumbed the black depths of human misery ; I understand that it is not possible for some people to live a decent life.

(16.K) 내 몸은 炭坑의 킵슨 밋트로 발길을 더듬더듬 드러노홀 째에 우리 사람든이 間間이 늦기리라고나 할 만한 그 神秘롭은 戰慄을 늦것든 것이다. 사람 치고서는 씹씩시럽고 맵살시럽은 晴黑의 킵슨 속살을 혼드러보앗든 것이다. 엇던 사람에 니르러서 正直히 살아갈 수는 到底히 不可能하다는 것이 이야말로 眞摛한 事實인 것을 나는 알았다.

(17.F) Elle murmura dans ses larmes :

(17.E) She murmured between her tears :

(17.K) 그러한즉 게집에는 우는 소래로 소군거렸다.

(18.F) “Avec satisfaction, monsieur.”

(18.E) “Gladly, sir.”

(18.K) “참 좃습니다.”

(19.F) Il n’y avait plus à dire non.

(19.E) There was no chance of no.

(19.K) 벌써 저로서는 ‘안이 실타’ 하면서 拒逆할 수가 업게 되엇대서 요.

예문 (16)에서는 원문의 밑줄 그은 두 어구 ‘전율을 느꼈다’와 ‘어떤 이들에게 (닥친) 소박한 삶의 불가능성’을 각각 ‘전율했다(shudder)’라는 동사 하나와 ‘어떤 사람들이 소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한 영어 번역 (16.E)에서 전위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 번역 (16.K)에서도 밑줄 그은 어구는 마찬가지로 전위의 용례가 된다. (17.K)에서는 원문의 명사(larmes)가 동사(‘우는’)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위의 용례가 된다. 예문 (18)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번역 모두에 전위가 나타나고 있다. (18.E)에서는 전치사구와 명사의 결합이 부사로 나타나고 있고, (18.K)에서는 부사와 형용사가 쓰인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문 (19)의 명사 ‘non’의 번역 양상을 보면, (19.E)에서는 명사 그대로 나타난 반면, (19.K)에서는 형용사의 부정형으로 나타나서 전위의 용례가 된다.

변조는 한국어 번역에 특히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영어 번역에서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다. 변조의 용례를 유형화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점(視點)의 변조이다.

(20.F) Une poussière d'eau voltigeait plutôt qu'elle ne tombait, voilant les becs de gaz, attristant la rue. Le trottoir luisait, gluant plus que mouillé.

(20.E) A fine rain was hovering in the air rather than falling, veiling the gas jets, spreading a gloom over the street. The gleaming pavement was sticky rather than damp.

(20.K) 문지 검불갓치 오는 비는 瓦斯灯 불빛출 어섬푸러히 적섯서 그 무리고 문지 검불갓치 오는 비는 추접은 거릿길에 쫓침업슨 哀傷을 던지고 잇섯다. 비는 말로 오더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갈기갈기 나뭇겨 흐리더라고 하켓다. 右로 까라노흔 돌길은 빗나더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번들번들 번쩍이더라고 하켓다.

(20.K)는 원문 (20.F) 및 영어 번역문 (20.E)와 비교해서 중요한 시점(視點)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원문의 주어는 두 문장 모두 사물(비, 길)인데,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는 사물이지만, 이 사물의 상태와 동작을 제3의 관찰자가 대신 서술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의 말미에 나오는 서술어 ‘~ 하겠다’로 알 수 있다. 이는 (번역자가) 마치 20세기 초반의 신파극에서 장면의 중간, 중간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해설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작품의 배경에 번역자가 개입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이와 같은 번역자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소월의 한국어 번역은 전반적으로 현대의 단편 소설이 지향하는 간결하고 정확한 문체와는 다소 거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원문의 두 문장이 한국어 번역에서 세 문장으로 분할된 변화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7)</sup> 문장의 호흡 조절도 작자의 고유한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면, 이러한

36) 물건 주어 구문을 꺼리는 한국어의 특징이 개입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단편 소설의 문체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로 보인다.

37) 한국어는 핵끝머리 언어(head-final language)이므로 중간에 끼어드는 과도한 수식 어구를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서도 ‘비’를 수식하는 어구가 이중으로 이어져서 아예

변화도 의무적 변조 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F) Les gens pressés ne regardaient rien.

(21.E) Anxious to get home, the passers-by looked neither to right nor left.

(21.K) 사람의 무리들은 넙도 도라보지 안코 꽤 맞본 듯시 거러가고들 있다.

(22.F) j'ai compris l'impossibilité de la vie honnête pour quelques-uns.

(22.E) I understand that it is not possible for some people to live a decent life.

비교적 간단한 원문 (21.F)에 대한 번역을 보면, 영어 번역 (21.E)에서는 원문에 없는 ‘집에 가고픈 마음에서(anxious to get home)’가 첨가되고 밑줄 그은 어구에 등가의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번역 (21.K)에서도 ‘꽤 바쁜 듯이’라는 어구를 첨가하고 원문의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와 같은 시제의 변조가 자주 눈에 띄이는데, 이는 복잡한 프랑스어의 시제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번역상의 미숙일 수도 있고 한국어의 고유한 시제 표현법을 잘 살린 번역상의 기교로 볼 수도 있다.<sup>38)</sup> (22.E)는 영어 번역에서 찾은 시제의 변조 용례(복합과거→현재)이다. 다음은 문장 서법의 변조이다.

(23.F) “Viens-tu chez moi?”

(23.E) “Will you come home with me?”

(23.K) “우리 집에 좀 가사지(가사지) 않으세!”

(24.F) “Est-ce que c'est ma faute?”

(24.E) “It wasn't my fault.”

문장을 분할한 것으로 생각된다.

38)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시점(視點) 이동이 가능하다. 장면에 따라 시제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점(視點)이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23.K)에서는 문장 서법의 변화, 곧 의문문을 감탄문으로 바꾸어서 옮긴 변조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번역 (24.E)에서도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어서 옮긴 변조 기법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인칭의 변조가 있다.

(25.F) Et nous v'la causant.

(25.E) So we fell to talking.

(25.K) 그런 대로 저의 몸은 함피 이야기하면서 갖습니다.

(25.K)에서는 원문의 1인칭 복수 시점을 1인칭 단수와 관련된 시점으로 변조해서 옮기고 있다.<sup>39)</sup>

등가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26.F) “Parce que je suis marié.”

(26.E) “Because I'm married.”

(26.K) “갈 수 업지. 난 안해가 잇는 사람이니까 그래.”

(27.F) Mon sang ne fait qu'un tour.

(27.E) My blood ran cold.

(26.K)에서는 원문의 ‘결혼했다’를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로, (27.E)에서는 원문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정도의 뜻을 ‘피가 차갑게 식었다(run cold)’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원문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등가 기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변안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28.F) “Bonjour, mamzelle.” “Bonjour, monsieur.”

(28.E) “Good morning, miss.” “Good morning, sir.”

(28.K) “어디로 가는가요(?)” “어디로 가시는 어른들이시야요(?)”

39) 대명사 번역의 오류로 볼 수도 있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함피’의 존재를 고려하면 인칭의 변조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예문 (28)은 서양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아침인사인데 이에 상응하는 언어 표현이 우리말에 없으므로 (28.K)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흔히 하는 인사로 대체했다.

### 4.3. 문화소의 번역 양상

프랑스어와 영어는 동일한 어족 및 문화권에 속하는 관계로, 문화소의 번역에서 특별히 눈에 띄이는 변개가 없었다. 반면에 프랑스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 및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소의 번역에서도 적잖은 변개가 예상된다. 전반적인 번역의 경향을 일별해 보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대체로 문화소 번역의 자국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호칭의 사용 양상, 경어법의 준수 여부, 신문물의 번역 어휘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9.F) “Voyons, mon enfant, ça suffit. Je t’ai tirée d’affaire. Laisse-moi tranquille maintenant.”

(29.E) “Well, my child, that’s enough. I’ve pulled you out of a hole. Leave me alone now.”

(29.K) “그래 그러, 색씨. 그만 하면 充分한 理由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 이녀이 네게 할 만한 일은 하여주엇겠지? 저봐, 그러면 인저는 이녀을 이대로 가만 뒤에 두는 것이 좃탄 말이야.”

(30.F) le trottoir

(30.E) the pavement

(30.K) 右로 까라노흔 돌길

(31.F) dix-huit francs/ vingt sous/ cent sous

(31.E) eighteen francs/ a franc / five francs

(31.K) 十八프랭 / 二十錢 / 百스우(류)<sup>40)</sup>

(29.K)에 보이는 ‘색씨’, ‘이녀’ 등이 고유한 호칭어 혹은 지칭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나리님’, ‘어른’, ‘主人兩班’, ‘중놈이’ 등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40) 목적격조사 ‘-를’의 오기로 보인다.

(30.F)는 당시까지 우리에게 생소한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응되는 번역 어휘를 포기하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뜻풀이 형식으로 옮기고 있다. (30.F)에는 프랑스의 두 가지 화폐 단위가 보이는데, 영어 번역 (31.E)에서는 ‘프랑(franc)’만을 차용하고 ‘수(sous)’는 ‘프랑’으로 환산해서 번역했는데, 이는 물론 영어권 독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단위를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 (31.K)를 보면, 두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당시 우리의 화폐 단위인 ‘전(錢)’을 ‘수’에 대응시켜 번역했다.

## 5.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 쓴 단편 「L'odyssée d'une fille」의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을 대상으로 그 번역 양상과 번역 기법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했다.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은 모두 원전에서 직접 번역된 1차 번역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각의 번역이 발표된 시기와 제목 등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둘째, 비교문체론에 입각해서 두 번역을 비교한 결과, 한국어 번역에서는 직접번역과 간접번역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직접번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 번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자번역의 기법을 적용한 것이라도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어구를 첨가한 번역이 많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가리켜 명시화 기법을 결들인 축자번역으로 명명했다.

넷째, 한국어 번역에서 많이 나타난 변조의 기법에는 시점(視點)의 변조, 문장 단위의 변조, 시제 표현의 변조, 문장 서법의 변조, 인칭의 변조 등이 있었다.

다섯째, 영어 번역에서는 특별한 문화소 번역 전략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대체로 자국화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번역의 번역자가 전통적인 호칭과 지칭을 대거 사용하고, 경어법의 구사에 비교



적 예민했으며, 새로운 문물과 관련된 어휘를 뜻풀이 형식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서구 문물에 익숙하지 않았던 당대 독자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번역 전략을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구정연 (1999) 『비교문체론적 번역방법에 관한 연구: 프랑스어의 한영 번역 텍스트의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병철 (1975)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1998)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 (상, 하), 서울: 을유문화사.
- 김영수 (2001) 『조선 중세 한문번역본의 언어사적 연구』, 서울: 역락.
- 김정우 (1994) 『번역문체의 역사적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종욱 (2005) 『정본 소월전집』 (상, 하), 서울: 명상.
- 민난식 (2005) 「문체론적 번역방법론: *Le Petit Prince*의 영어-한국어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6: 2, 79-101.
- 이승권 (2004) 「비교문체론과 번역」, 『프랑스 문화예술 연구』, 6권 2호, 통권 제11집, 215-237.
- 이 향 (2008) 「비네와 다블네의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 그 의미와 한계」, 『프랑스학연구』, 통권 제45호, 77-95.
- 전성기 (1996) 『불한 번역 대조 분석』. 서울: 도서출판 어문학사.
- \_\_\_\_\_ 옮김 (2003)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번역학 총서 10).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조진기 (1989) 『한국 근대 리얼리즘 소설 연구』. 서울: 새문사.
- 지정숙 (2002) 『초보자를 위한 번역의 기초 이론』. 서울: 문예림.
-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불한사전(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Guy de Maupassant (1883) *The Olive Orchard, and Other Stories*, Translated by Storm Jameson, in Ernest Boyd (ed) *Collected Novels and Stories of Guy de Maupassant, Volume 1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wo Translated Versions of  
Korean and English from the Original Text 'L'odyssée d'une fille  
written by Maupassant**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author has tried to elucidate both different and similar featur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 by comparing their stylistics of two translated versions of *L'odyssée d'une fille* by Maupassant. The results discussed in the paper are as follows :

First, it could be safely argued that both Korean and English translated versions were first hand translations, i.e. they were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original text. Their titles and publication dates support this line of reasoning.

Second,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stylistics, the Korean translated text shows an even rate of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 technique, while the English translated text has overwhelming distribution of direct translation technique.

Third, even though he adopted the literal translation strategy, the Korean translator Sowol frequently added some phrases or expressions, if need be, for the purpose of explication. The author has named it as a word-to-word translation with the explication effect.

Fourth, the modulation procedure showed the various aspects of its target at which the translator tried to change; viewpoint, sentential unit, time expression, mood, personal reference.

Fifth, the Korean translated text revealed the domestication strategy of cultural elements, while the English translated text showed no related

translation strategy to speak of. This could help Korean readers at that time, who were stranger to Western way of living and institutions, become familiar with them and minimize their cultural shock.

▶ Key Words: Maupassant, la stylistique comparée, l'emprunt, le calque, la traduction littérale, la transposition, la modulation, l'équivalence, l'adaptation, domestication, foreignization, neutralization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분야: 번역사, 번역 이론

논문투고일: 2010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